https://data.doi.or.kr/doi/10.29213/crbs..40.202610.125

조선 후기 仁岳의 楞嚴私記에 보이는 '極量'의 용례에 대한 검토

이동혁(대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 대강백 인악 의첨(仁岳義沾, 1746~1796)의 능엄사기에 빈번히 출현하는 '극량(極量)'의 용례를 검토하고 그 정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다. '극량'은 원래 『능엄경』을 한역한 반랄밀제(般剌密帝)를 의역한 명칭이지만, 인악의 사기에서는 문맥상 반랄밀제가 아닌, 별도의 주석 혹은 주석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능엄사기 전체(권1~10)를 대상으로 '극량'의 출현 빈도와 문맥을 조사한 결과, 권3 · 9 · 10을 제외한 나머지 권에서 전체 58회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형을 '①단순 참조형', '②비교평가형', '③서지 명시형', 그리고 '④전재형'의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 이 가운데 구체적인 풀이를 보여주는 13건의 '②비교평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극량'은 반랄밀제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문헌으로 읽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극량'을 장수 자선에 대한 존칭으로 논의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권1의 용례에 한정해서 볼 때 사기에서 '극량'의 이름으로 인용한 문장과 장수 자선(長水子璿, 965~1038)이 찬술한 『수능엄의소주경(首楞嚴義疏注經)』의 문장이 정확하게 대응하기에 그 주장과 부합한다. 다만, 권4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극량'이 장수의 견해를 따르는 별도 주체로 서술되므로 양자를 그대로 등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www.kci.go.kr

아울러 『해몽초(解蒙鈔)』 권수에 실린 당대까지의 『능엄경』 관련 주석서 목록집에서도 ‘극량’이라는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본고는 ‘극량’이 특정 인물의 단일 저술이 아닌, 장수 계열의 주석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편집한 일종의 자료집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이와 같은 추정에는 여전히 고증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일견 조선 후기 강원에서 이뤄진 강학 사기의 주석 전통이 중국 주석서를 단순하게 수용하며 답습하는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종합 재편집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주제어: 조선 후기, 능엄경, 인악 의첨, 능엄사기, 극량, 장수 자선

Ⅰ. 문제의 소재

『능엄경』은 중국의 당대부터 청대까지 제종(諸宗)의 종장(宗匠)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며, 저마다의 종지(宗旨)에 따른 주석서가 등장했다. 그 수를 왕조별로 산출하면, 당대 4종 · 송대 20종 · 원대 4종 · 명대 42종 · 청대 12종으로 전체 82종으로 추산된다.[1]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승려의 수학기관인 강원의 이력과정 가운데 핵심 과목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강학 자료인 사기로 찬술되기에 이른다.

그 사기 찬술의 대표 인물이 당대의 대강백인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과 인악 의첨이다. 그리고 능엄사기의 존재는 『능엄경』의 강학과 주석 전통이 전승되며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좌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중국의 여러 주석서를 인용하며 비교 검토하고 종합 비판하는 등 당시 한문 불전 주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기도 하다.[2]

---

1) 김진열 1991, 301-306; 이동혁 2026, 12.

2) 이동혁 2026, 134-135.
참고로, 연담과 인악의 능엄사기를 확인해 보면 연담이 두 배 가까운 압도적인 양의 인용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능엄경의소주경』(34회), 『수능엄경소해몽초』(21회), 『환해산보기』(7회), 『능엄경문구』(5

www.kci.go.kr

그런데 인악의 능엄사기 가운데, 다른 주석서를 인용할 때 쓰는 방식으로 '극량'과 관련한 용례가 자주 출현한다. 과연 이때의 '극량'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생겼다. 주지하다시피 『능엄경』을 한역한 반랄밀제를 한자로 의역한 것이 '극량'이기 때문이다[3]. 그러면 반랄밀제가 주석서를 남겼다는 것인가?

그러나 인악이 사용한 용례를 검토하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주석 혹은 별도의 주석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極量傳'·'極量頌'·'極量釋'처럼 '극량'이라는 이름의 별도 '전(傳)'·'송(頌)'·'석(釋)'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하거나, 계환(戒環)의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이하 『요해』)를 대상 텍스트로 사기하되 '극량'을 장수·고산(孤山)·오흥(吳興) 등의 중국의 주석가들과 비교 평가하는 대목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악의 능엄사기에서 '극량'은 독립적인 주석 전승의 주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이 촉발한다.

조선 후기의 경전과 관련한 사기류의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4] 그 가운데 능엄사기와 관련한 연구는 『능엄경』 권1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권1에 해당하는 능엄사기에서 '如極量釋'이 등장하는 단락마다 검토한 결과, 장수 자선의 풀이와 인용 전거에서 공통점을 확인한 뒤 인악이 장수의 풀이에 '지극(至極)한 궁극의 탁량(度量)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5]

따라서 본고는 그 논문에서 의미 부여한 '극량' 관련 부분을 참고함은 물론, 나머지 아홉 권을 아울러 전체 텍스트 가운데 출현하는 '극량'의 용례를 추려낸 다음, 사기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주석서 원문의 직접 대조를 통해 그 정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악의 능엄사기 전체(권1~10) 텍스트를 그 대상으

회) 등의 순으로 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악의 경우는 『능엄경의소주경』(8회), 『환해산보기』(4회), 『능엄경문구』(4회) 등의 순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차는 1681년 전남 임자도에 표착한 중국 상선이 싣고 있던 다량의 불전을 수습하고 간행한 백암 성총(栢庵性聰, 1631~1700)의 노력 끝에 특히 호남 사찰에서 많은 불전을 소재한 방증으로 여겨진다. 이동혁 2026 37-38; 이동혁b 2026, 186.

3) 『宋高僧傳』 卷2, 「譯經」 篇 1의 2(T. 50, 718c3-5): 〈唐廣州制止寺極量傳〉 釋極量, 中印度人也, 梵名般剌蜜帝, 此言極量.

4) 지금까지 16편의 학술 논문(김용태 2010; 이종수 2010; 김용태 2012; 이종수 2012; 이정희 2013; 김천학 2016; 이선화 2016; 이종수 2017; 이종수 2018; 이상하 2018; 이승범 2018; 엄미경a 2022; 엄미경b 2022; 이승범 2024; 이동혁a 2026; 이동혁b 2026)과 석사학위논문 1편(김서호 2020),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5편(이선화 2017; 엄미경 2021; 이승범 2021; 윤미란 2025; 이동혁 2026)이 나온 상태다.

5) 이동혁 2026, 37.

www.kci.go.kr

로 삼되,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필사본 사기를 탈초 정서해 간행한 자료[6]를 검토하면서 '극량'의 출현 위치와 빈도, 그리고 문맥을 추출해 도표화한다. 이어 그 용례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주석이나 인용 내용을 C-beta 검색을 통해 여타『능엄경』주석서들과 대조하며 비판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 논의된 연구 내용 역시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악의 능엄사기에 쓰인 '극량'의 독법과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인악의 능엄사기에 쓰인 '극량'의 인용 양상

1. 권별 출현 빈도와 유형 분류

인악의 능엄사기 가운데 '극량'을 언급한 부분을 권별로 추출한 결과, 총 58회 출현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 권3과 권 9・10을 제외하면, 저마다 권1에 8회・권2에서 4회・권4에 6회・권5에서 7회・권6에 9회・권7에서 10회・권8에 14회의 빈도로 분포한다. 이를 다시『능엄경』의 권별 대의를 드러낸 '능엄십의(楞嚴十義)'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권차	출현	능엄십의
권1	8회	칠처징심(七處徵心)
권2	4회	팔환변견(八還辨見)
권3	0회	회귀일헐(會歸一歇)
권4	6회	부석제상(部析諸相)
권5	7회	육해일망(六解一亡)
권6	9회	선택원통(選擇圓通)
권7	10회	주심묘용(呪心妙用)
권8	14회	지위진수(地位進修)
권9	0회	오음망상(五陰妄想)
권10	0회	오십종마(五十種魔)

<표1> 인악의 능엄사기 가운데 '극량'의 권별 출현 빈도

6) 봉선사능엄학림 2013.

www.kci.go.kr

〈표〉에서 보이는 분포의 출입 이유를 능엄십의를 토대로 검토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미루며, 본고의 목적인 '극량'의 정체 추적에 집중하기로 한다.

'극량'의 용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수행 계위를 다루는 권8로, 전체의 24.1% 정도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아난을 마등가의 유혹에서 구한 능엄신주와 관련한 내용인 권7이 대략 17.2%, 25명의 제자가 저마다 원통을 이룬 수행 방법을 진술하는 권6이 15.5% 정도를, 그리고 마음의 소재에 대한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을 주제로 하는 권1이 대략 13.8%이다. 이는 단순 수치상 통계이므로, 각 용례의 유형을 분류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見極量"의 형태로 별다른 내용의 소개 없이 '극량을 보라'는 지시 형태인 '①단순 참조형', 구체적인 풀이를 소개하거나 다른 주석서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②비교평가형', '극량'이라는 이름으로 전(傳)·송(頌)이 존재함을 명시하는 형태인 '③서지 명시형', 그리고 "~卽云"과 "~傳云"처럼 직접 인용한 것을 표시하는 '④전재(轉載)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하는 유형은 35건의 ①단순 참조형이며, 그 뒤를 이어서 ②비교평가형이 13건, ③서지 명시형과 ④전재형은 각각 3건씩 확인된다. 한편, 유일하게 '단순 참조형 + 비교평가형'이 함께 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총 55건으로 앞서 추출한 '극량'의 출현 횟수 58회와 차이가 나는데, 그 부족한 3회는 비교평가형에서 세 차례 중복되어 언급되기 때문이다. 곧 일부 사기 단락의 한 문단에서 '극량'이 거듭 언급되는 경우이다. 이를 다시 권별로 각 유형의 출현 빈도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권차	출현	용례 유형	출현 건수
권1	8회	①단순 참조형	5건
		②비교평가형	2건
		④전재형	1건
권2	4회	②비교평가형	4건
권3	-		
권4	6회	②비교평가형(2회 중복 언급)	4건

www.kci.go.kr

권차	출현	용례 유형	출현 건수
권5	7회	①단순 참조형	3건
		②비교평가형(1회 중복 언급)	1건
		③서지 명시형	2건
권6	9회	①단순 참조형	7건
		③서지 명시형	1건
		단순 참조형 + 비교평가형	1건
권7	10회	①단순 참조형	9건
		②비교평가형	1건
권8	14회	①단순 참조형	11건
		②비교평가형	1건
		④전재형	2건
권9	-		
권10	-		

〈표2〉 권별 '극량'의 용례 유형 출현 건수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인 '①단순 참조형'의 경우, 권1에는 '如極量(所)釋'으로 쓰였고 나머지 권에서는 모두 '(詳)見極量'으로 적힌 것이 특기할 만한데,[7] 어찌 됐든 그 의미는 모두 '극량'의 해석을 참고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저 그와 같은 언급만 있을 뿐, '극량'이 어떠한 내용으로 풀이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게다가 '③서지 명시형'과 '④전재형'과 같은 경우, '極量傳'·'極量頌'과 같은 실제 목록이나 '極量卽云'의 인용 구절 등이 C-beta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는다.[8]

따라서 이 세 유형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결괏값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표2〉 가운데 중간 밝기로 음영 처리한 '②비교평가형'의 내용을 중심으로 '극량'의 존재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

7) [권1의 01上03] 像季等者는 已如極量釋하니라. [권1의 19下05] 六種震動者는 如極量所釋이로대 而盖本明이 洞顯하니 普佛世界가 皆搏落故로 六種震動이라. [권5의 16下04] 四分者는 貪과 嗔과 癡와 等分也니 詳見極量이라. [권6의 19上03] 將聞持佛佛者는 見極量하라. - 봉선사능엄학림 2013, 190; 213; 271; 280.

8) 유일하게 검색되는 '極量傳'은『송고승전』권2(T. 50, 718c3-17)에서 확인되지만, 이는『능엄경』을 한역한 반랄밀제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

www.kci.go.kr

2. 대표 유형의 내용 분석

전체 13건이 확인되는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전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권수와 위치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전문
권1 20下05	'識精元明'의 풀이는 고산과 장수의 두 해석이 이미 '극량'에서 분명한데, 고산은 "'識精'은 마음의 성품과 같다. …" 했고, 장수는 "'識精'은 제8아뢰야식이다. … "라 했다. 아마도 고산의 말이 장수의 넓음만 못한 듯하다. 어째서인가? 부처님께서 장차 인연으로 遺棄될 참다운 마음을 가리키고자 하셨기에 "마음의 성품이 염오와 청정의 인연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염오의 인연에서 유기된 것이다"라고 이르면, 이는 말의 형세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즉 '8식이 6근의 몸과 기세간 등의 모든 인연을 낼 수 있는데 그 인연에서 유기된 것'이라야 비로소 납득갈 테니, 자세하게 사유해 보기를 바란다. 『요해』(를 저술한) 이가 풀이하며 이르되 "'識精'은 아타나식이다"라 했는데, 이는 고산에 의거했고, '6근의 몸과 기세간을 모든 인연으로 여긴다'는 장수의 의도를 취했건만, 장수(의 뜻)을 온전히 취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9]
23下08	'發妙明' 등(의 구절에서) '妙明心'은 곧 위(에서 말한) '寂常心性'이며 '道眼'은 바로 위에서 (말한) '知' 자이다. 眞心과 眞見이 이미 발현해 열린다면 소지장이 타파될 것인데, 소지장이 이미 타파되면 번뇌장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극량'의 주석서[集]에 위의 구절을 번뇌장을 타파했다 여기고 아래 구절을 소지장을 타파했다 여긴 것은, 아마도 『환해산보기』에 인용한 『유식론』 2障義의 뜻은 아니다. 생각건대 이 가운데 '障'의 체와 '障'의 의를 반드시 『유식론』에 의거해야 하는 것은, 『능엄경』이 비록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여기에서 이미 아난이 미혹한 까닭인 것이다. 그러나 眞心과 眞見의 료간은 위의 두 뜻에 두지만, 이제 경문은 그대로 나중의 뜻이다.[10]
권2 10下03	'性汝어늘 不眞하야'(로) 현토하라. 또한 '극량'이 인용한 옛 주해가 있지만 『요해』의 뜻만 못하다.[11]

9) "識精元明釋者는 孤山長水二解가 已明於極量이어니와 而孤山曰'識精은 猶心性也라 云云'하고 長水曰'識精은 第八阿賴耶라 云云'하니(라.) 盖孤山之言이 不如長水遠矣로다. 何者오? 佛이 將欲指緣所遺之眞心하사 而曰"心性이 能生染淨緣이어든 其染緣에게 所遺者"라하면 此非語勢也라. 然則八識이 能生根身器界等諸緣이어든 其緣에게 所遺失者라사 始得이니 請詳思之어다. 《疏》家가 釋云"識精은 陀那性識"이라하니 此依孤山이요 "根身器界로 爲諸緣"은 取長水意어니와 可惜其全不取長水也로다!" 봉선사능엄학림 2013, 213-214.

10) "發妙明等者는 妙明心은 卽上寂常心性이요 道眼은 卽上知字니라. 眞心眞見이 旣發開則所知障이 破矣요니 所知가 旣破則煩惱가 何起리오? 極量《集》에 以上句로 爲破煩惱하고 以下句로 爲破所知者는 恐非《幻解》所引《唯識》障義之意也라. 盖此中의 障體와 障義를 必依《唯識》者는 《楞嚴》이 雖聖教로대 而此旣爲阿難所迷故也라. 然眞心眞見의 料揀이 上有二義하나 今經은 卽其後義也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16.

11) "性汝어늘 不眞하야 吐라. 又有極量所引舊解는 而不如《疏》意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27.

www.kci.go.kr

권수와 위치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전문
20上01	경전에 ‘見猶’ 등 세 ‘見’ 자에서, 위의 ‘견’ 자는 妙精明心이며, 아래 두 ‘견’ 자 모두 ‘허망함과 상대되는 참된 견[對妄之眞見]’이다. 이는 곧 『요해』의 뜻이니 ‘離見이라’(로) 현토하고, 다시 여기에서 세 층의 ‘견’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견’은 묘정명심이며, ‘이견’의 ‘견’은 ‘허망함과 상대되는 참된 견’이고, ‘見不’에서 ‘견’은 그대로 망견인데, 이것은 옛 주해이니 자세하게는 ‘극량’과 같다. ‘이견하야’(로) 현토하라.[12]
21下03	‘見圓影’ 등은 경문 뜻을 자세히 검토한즉 ‘극량’의 풀이가 『요해』의 뜻보다 수승한 듯하다. 여기서 만약 법에 배대하면, 오도의 依報와 正報는 8식이 낸 것이 아니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까닭이고, 7식이 낸 것이 아니기에 7식이 이미 의보와 정보를 이뤘다면 7식이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오도의 의보와 정보를 보는 것을 오히려 7식이라 부른 까닭이다.[13]
24下03	경문에 ‘閻浮’ 등(의 구절)은 위의 ‘喩’에 비록 이러한 문구가 있지만, (그) 뜻은 넓은 것을 거론하면서도 국한된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小洲 한 나라를 취하며, 지금 ‘法’에 있어서는 (그) 뜻이 좁은 데서부터 넓은 데로 이르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시방세계에 다다르기에, 이것이 ‘法’과 ‘喩’가 똑같지 않은 까닭이다. 하물며 몹쓸 재앙[瘴惡]과 병의 인연에 대해 쉽고 어려움에 있어서겠는가? 고산의 견해가 ‘극량’에게 탄핵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14]
권4 14上09	‘요’는 음이 ‘규’요, ‘묘’는 보환스님과 ‘극량’이 모두 옛 주석을 인용했지만, 서계[15]의 『신주도덕경』에서 이르기를 “항상하는 무는 체인데 여기서 바로 지극하게 묘한 이가 만상을 포함하는 줄 관하고자 하며, 항상하는 유는 용인데 여기에서 지극히 현저한 만상이 하나의 이에 근원하는 줄 관하고자 한다. ‘요’는 경계이다”라 했는데, 바로 『요해』의 뜻이 있는 곳이다.[16]

12) “經에 見猶等三見字에 上見字는 妙精明心이요 下二見字는 皆對妄之眞見이라. 此卽《疏》意니 離見이라 吐요 亦可於此에 分三層見字니(라.) 上見은 妙精明心이요 離見의 見은 對妄之眞見이요 見不의 見은 卽妄見이니 此는 舊解니 具如極量이요 而離見하야 吐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32-233.

13) “見圓影等者는 細檢文義則極量之釋이 似勝《疏》意로다. 此中에 若配於法인댄 五道依正이 非八識生이니 無執者는 不見故요 非七識生이니 七識이 已成依正則不合名七識而彼見五道依正者를 猶名七識故요” 봉선사능엄학림 2013, 233.

14) “經에 閻浮等者는 上喩中에 雖有此文이나 意在擧廣而取局이나 則其實은 要小洲一國이요 今法中에는 意在從狹而至寬이나 則其實은 極十方世界니 此法喩之所以不同者也라. 況有瘴惡病緣之難易者乎아? 孤山之見彈於極量이 固其宜矣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36.

15)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호다.

16) “徼는 音이 규요 妙는 幻師與極量이 皆引舊註나 西溪《新註》則云호대 常無는 體니 於此에 卽欲以觀至妙之理가 包含萬像이요 常有는 用이니 於此에 欲以觀至著之像이 根源一理니(라.) 徼는 際也라하니 正是《疏》意所在니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58.

www.kci.go.kr

권수와 위치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전문
25上10	‘三四’ 등 두 구절은 별도로 ‘一変’과 ‘一疊’을 설명한 것이고, ‘流変’ 이하는 총체적으로 ‘三変’과 ‘三疊’을 설명한 것이다. ‘一十百千’은 『요해』에서 풀이를 두었는데, ‘극량’의 뜻에 입각한즉 총체적으로 ‘三變’의 뜻과 통하며, 『환해산보기』의 의도에서 입각하면 다만 뒤의 둘이 疊의 뜻일 뿐이다. 이 가운데 ‘천이백’을 『요해』와 자중 · 고산 · 장수 · 오홍은 모두 그저 수를 합했을 뿐이라 했는데, 『요해』와 오홍은 따로 변과 첩의 차이가 없건만, 자중 · 고산 · 장수는 모두 변과 첩이 같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결같이 수를 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매우 무미한 듯하다. 그러므로 각 · 민 두 스님은 법상에다 배대했거니와 그 배대한 법상도 매우 구차한데, 도리어 수를 합한 ‘꾸밈없이 바른[平直]’ 것만 못하므로 보환스님도 역시 수를 합한 것에 따른다. 그러나 보환스님은 오홍이 수를 합한 것에 따르며, ‘극량’은 장수가 수를 합한 것에 따르거니와 나는 ‘극량’을 따를 뿐이다.[17]
25下01	『요해』에 ‘自一疊十’ 등은 위에서 이미 표하며 이르기를 “삼첩이 있다” 한즉 ‘극량’이 이른바 “삼첩에 총괄적으로 통한다”는 뜻이 매우 납득가는데, 『요해』의 뜻이다. 어찌 『환해산보기』에서처럼 “그저 뒤의 두 첩만을 설명한 뜻이겠는가?[18]
27上07	‘見所斷’ 등은 보환과 ‘극량’이 이미 자세히 (풀이)했기에 다시 언급할 것이 없겠는데, 이 가운데 ‘중’ 자를 『요해』에는 ‘근중’으로 삼았는데, 『환(해산보기)』와 『해몽초』는 실교로 여겼기에, 저것이 이들보다 현명하다.[19]
권5 06下06	‘佛言’ 등은 위는 ‘비유와 예증[喩]’이고, 이것은 ‘전제하는 주장[法]’과 ‘종합한 적용[合]’인데, 총체적으로 ‘육해일망’을 설명했으며, ‘由汝’ 아래는 ‘결혹’의 체상을 바로 보였다. ‘일’과 ‘육’자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환해산보기』는 “‘유’에 여섯 매듭과 한 매듭에 두었고 ‘법’에 6근과 한 근의 뜻에 두었다” 했기에 앞서 미루 어 설명한 가운데 말후의 ‘1’‘6’과 한가지로 똑같거니와, ‘극량’은 ‘유’에 여섯 매듭과 한 수건을 두었으며, ‘법’에서는 6근과 한 근의 참됨에 두었기에 앞서 미루어 설명한 것과 중간에서 두 가지 ‘1’‘6’에 입각하면 다시 다른 뜻이지만, 경전의 문구를 자세히 완미하면 ‘극량’(의 뜻)이 우월하다.[20]

17) “三四等二句는 別明一変一疊하고 流変已下는 總明三変三疊이라. 一十百千은《疏》有所釋이로대 而約極量意則總通三變意하고 約《幻解》意則只是後二가 疊意요 此中의 千二百을《疏》及資中孤山長水吳興은 皆但合數而已라호대《疏》及吳興은 別無変疊之異어늘 資中孤山長水는 皆以爲変疊不同이라하니라. 然其一向合數說去者인댄 似甚無味로다. 故로 慤敏二師는 配法相이어니와 其所配法相이 亦甚苟然하니 却不如合數之平直故로 幻師도 亦從合數하니라. 然이나 幻師는 從吳興之合數하고 極量은 從長水之合數어니와 吾從極量而已로다” 봉선사능엄학림 2013, 262.

18) “《疏》에 自一疊十等者는 上旣標云故有三疊則極量所謂總通三疊之意가 甚得이니《疏》意로다. 何曾如《幻解》의 只於後二疊上에 說去之意리오?” 봉선사능엄학림 2013, 262.

19) “見所斷等者는 幻與極量이 已詳之하니 更無所言이로대 此中의 中字를《疏》以爲根中이로대 而《幻(解)》與《蒙鈔》는 以爲實教라하니 彼賢於此此로다” 봉선사능엄학림 2013, 263.

20) “佛言等者는 上은 喩요 此는 法合이니 則總明六解一亡이요 由汝下는 正示結惑體相이니(라.) 總明一六字는《幻解》則在喩에 六結與一結이요 在法에 六根與一意라하니 一同前推明中의 末後一六이어

www.kci.go.kr

권수와 위치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전문
권7 23下08	‘變化衆生…’은 옛 해석에 이르되 “3세와 4방이 서로 12중생을 이룬다. 이를 의지해 업을 지으므로 변화중생도 12(중생)을 이루기에 이것이 인과가 서로 감응하는 것이 된다” 했는데, 지금의『요해』와 다소 같고,『문구』 역시 그렇지만,『설통』과 ‘극량’은『요해』와 다르다.[21]
권8 08下01	‘無嗔恨…’은『요해』의 뜻이 ‘극량’과 다른데, 제6과는 정보며 제7과는 의보이다.[22]

〈표3〉 ‘②비교평가형’의 권별 위치와 전문

그 권별 해당 유형의 전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1의 20下05는 주제어 ‘식정(識精)’에 대한 고산[23]과 장수[24]의 견해를 절충해 주석한『요해』가 장수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지점을 거론한 사기 내용인데, 그 두 사람의 해석이 ‘극량’에서 분명하게 다뤘음을 밝히며 해당 구절의 사기를 시작하고 있다. 23下08에서는 주제어인 ‘발묘명(發妙明)’·‘도안(道眼)’과 관련한 ‘극량’의 해석이『환해산보기』에서『유식론』의 2장의(障義)를 인용한 뜻과 다름을 드러냈다.

권2의 10下03에서는 ‘극량’에서 인용한 옛 풀이가『요해』의 해석만 못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밝혔으며, 20上01은 경문 가운데 ‘견유(見猶)’ 등의 세 ‘견(見)’ 자와 관련한『요해』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 ‘극량’에 자세하다는 옛 주해의 풀이를 부연하며 현토 방법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 21下03에서는 주제어가 되는 ‘견원영(見圓影)’에 대한 경문의 뜻을 검토한 결과『요해』보다 ‘극량’의 풀이가 뛰어나다며 그 이유를 밝히고

니와 極量則在喩하야는 六結與一巾이요 在法하야는 六根與一眞이니 望前推明과 中의 兩種一六하면 又是別意나 細翫經文인댄 極量爲優로다” 봉선사능엄학림 2013, 268-269.

21) “變化衆生云云은 舊解云三世四方이 互成十二衆生이니(라.) 依此造業故로 變化衆生이 亦成十二니 此爲因果相感也라하니 與今《疏》稍同하고《文句》亦然而《說通》極量則與《疏》有異하니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90.

22) “無嗔恨云云은《疏》意與極量이 以別하니 第六科는 正報요 第七科는 依報也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95.

23) 고산 지원(孤山智圓, 976~1022): 송대의 천태종 산외파(山外派) 소속 승려로 유불일치(儒佛一致)와 회통을 주장했다. 이로써 당대 신유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곡향초(谷響鈔)』(10권)라는『능엄경』주석서를 지었지만 현전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이 다른 문헌에 인용돼 전한다.

24) 장수 자선(長水子璿, 965~1038): 송대의 화엄종 계열의 승려로서, 선교융합(禪敎融合)의 가르침을 폈다. 특히 황제로부터 楞嚴大師라는 시호를 받기도 했는데, 고려의 의천(義天, 1055~1101)이 송으로 유학했을 때 스승으로 섬긴 진수 정원(晋水淨源, 1011~1088)의 스승이다.『수능엄의소주경(首楞嚴義疏注經)』(10권)·『금강반야경찬요간정기(金剛般若經纂要刊定記)』(6권)·『대승기신론필삭기(大乘起信論筆削記)』(20권) 등을 지었다.

www.kci.go.kr

있다. 그리고 24下03은 주제어 '염부(閻浮)' 등과 관련해서 '유(喩)'와 '법(法)'에 입각하면 그 이해가 달라짐을 설명하며 '극량'이 고산의 견해를 논박한 것이 당연하다고 공감했다.

권4의 14上09에는 보환[25]과 '극량'이 똑같이 옛 주석을 인용했다는 것을 거론하는 한편, 박세당이 주석한 『신주도덕경』의 내용을 끌어와서 『요해』에서 설명한 낙처를 드러냈다.[26] 25上10에서는 경문에서 '三四' 등의 두 구와 '流変' 이하는 저마다 '일변(一變)' '일첩(一疊)'을 별도로 설명한 것과 '삼변(三變)' '삼첩(三疊)'을 아울러 설명한 것임을 먼저 설명한 다음, 『요해』에서 풀이한 '일십백천(一十百千)'을 '극량'과 『환해산보기』에 각각 입각하면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서 '천이백'의 경우, 『요해』와 자중[27] · 고산 · 장수 · 오홍[28]이 모두 그저 수를 합한 것일 뿐이라며 설명하되, '변'과 '첩'의 해석에서 『요해』와 오홍은 차이가 없지만, 자중 · 고산 · 장수는 다르다고 인식했음을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환해산보기』와 '극량'이 저마다 오홍과 장수가 수를 합한 데 따르지만, 본인은 '극량'을 따른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25下01은 『요해』에서 '자일첩십(自一疊十)' 등의 내용은 '극량'처럼 총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환해산보기』의 견해에 반문하면서 '극량'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27上07에서는 주제어 '견소단(見所斷)' 등이 『환해산보기』와 '극량'에 자세히 나오기에 재론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중(中)' 자에 대해 『요해』는 '근중(根中)'으로, 『환해산보기』와 『해몽초』[29]는 실교로 여긴 것을 비평한 것이다.

---

25) 한암 보환(閑庵普幻, ?~?): 1265년 도반의 요청으로 귀로암의 낙성법회에서 송대 임제종의 계환(戒環, ?~?)이 지은 『능엄경요해』를 강설했는데, 문의가 순조롭지 않고 서술이 거칠며 그 뜻이 비루한 곳을 첨삭한 결과물로 『수능엄경환해산보기(首楞嚴經環解刪補記)』를 지은 고려말의 승려다.

26) 박세당의 『신주도덕경』은 당시 절대적인 주자 성리학의 풍토 속에서도 노장사상을 독자적으로 수용해 주석을 단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사후에 노론계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탄받기에 이른다. 그 서문을 보면, 박세당은 노자의 도가 성인(공자)의 가르침과 다르더라도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유용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명분에만 치우친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김학목 2012, 49-58.

27) 자중 홍민(資中洪敏, ?~?): 천태종 제14조인 고륜 청숭(高論清竦, ?~?)의 방계로, 장수가 그에게 『능엄경』을 배웠다. 『능엄경자중소증진초(楞嚴經資中疏證眞鈔)』(6권)을 지었으나 현전하지 않는다.

28) 오홍 정각(吳興淨覺, 992~1064): 송대 천태종 산외파의 승려로, 인악(仁岳)이 본래 법명이다. 사명 지례(四明知禮, 960~1028)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후 아미타불신(阿彌陀佛身)에 대한 해석을 두고 스승의 견해와 대립하며 산외파의 대표가 됐다. 『능엄집해(楞嚴集解)』(10권)와 『능엄문구훈문기(楞嚴文句熏聞記)』(5권) 등을 저술했는데, 『능엄집해』는 현전하지 않는다.

29) 『해몽초』: 명말청초(明末清初)의 몽수거사(蒙叟居士)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이 『능엄경』 주석서 30여 종을 모아 비평하며 찬술한 『대불정수능엄경소해몽초(大佛頂首楞嚴經疏解蒙鈔)』(10권)이다.

www.kci.go.kr

권5의 06下06권에서는 해당 경문의 부처님 말씀에 대해 '유(喩)'와 '법(法)'을 구분하고, 육해일망[30]과 관련해 '1'과 '6'의 해석에 있어서 『환해산보기』와 '극량'의 차이점을 드러내고는, 경전 문구를 깊이 음미하면 '극량'의 견해가 낫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권7의 23下08에서 주제어 '변화중생(變化衆生)…'의 옛 해석이 『요해』와 『문구』[31]와 같은 반면, 『설통』[32]과 '극량'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권8의 08下01은 주제어 '무진한(無嗔恨)…'의 뜻이 '극량'과 『요해』에서 다르다는 것을 대략 설명한 것이다.

결국 위 <표3>에서 정리한 '②비교평가형'의 전문을 종합해 보면, '극량'은 번역가 반랄밀제가 아니라 한 주석가의 이름이나 주석서 제목으로 읽힌다. 그리고 인악은 그 사기의 문장 속에서, 여타 『능엄경』 주석들과 '극량'의 풀이를 비교하며 그 내용이 더 낫다거나 못하다 비평은 물론,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장을 달리해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극량'의 정체를 검토해 보자.

Ⅲ. '극량'의 정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극량'의 원의와 최근 연구에서 논의한 '극량'의 의미

『능엄경』 관련 문헌을 보면, '극량'은 일반적으로 한역자(漢譯者) 반랄밀제를 공통으로 가리킨다. 그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문헌으로 당대(唐代) 지승(智昇, ?~?)이 찬술한 『속고금역경도기(續古今譯經圖紀)』 권1을 보면, "사문 반랄밀제. 중국(말)로 '극량'이라 이르며, 중인도 사람이다"[33]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로 여타 『능엄경』 주석서에서도 그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34] 인악과 더불어 조선 후기 강학을 대표하는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의 능엄사기에서도 '극량'과 관련한 부분은 단

30) 육해일망(六解一亡)은 『능엄경』 권5의 핵심 주제로, '긴 수건에 묶인 여섯 매듭이 모두 풀려버리면 마지막에 하나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때의 여섯 매듭은 6근의 번뇌를을 의미한다.

31) 『문구』: 명대 4대 고승 중 우익 지욱(藕益智旭, 1599~1655)의 『능엄경문구(楞嚴經文句)』(10권)다.

32) 『설통』: 청초의 학자 유도개(劉道開, ?~?)가 지은 『능엄경설통(楞嚴經說通)』(10권)을 말하며, 『능엄경관섭(楞嚴經貫攝)』으로도 부른다.

33) 『續古今譯經圖紀』 卷1, 「大唐傳譯之餘」(T. 55, 371c24): 沙門般剌蜜帝。唐云極量, 中印度人也.

34) 『首楞嚴經義海』 卷30, (P. 168, 914b4-5); 『楞嚴經通議』 卷1, (X. 12, 534c2); 『楞嚴經正脉疏』 卷1, (X. 12, 191b1-2).

www.kci.go.kr

한 번 등장할 뿐이다.[35]

그러나 인악의 능엄사기에 출현하는 '극량'의 용례에 있어서는 문맥상 반랄밀제로 읽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 착안한 논의가 최근에 나왔다. 『능엄경』 권1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언해와 조선 후기의 사기를 함께 회편 역주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한 박사논문에서,

> 인악은 장수 자선의 견해를 '여극량석(如極量釋)'으로 표현하며 인용했는데, 곧 '지극(至極)한, 궁극(窮極)의 탁량(度量)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듯하다.[36]

라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를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는 않았지만, 회편 역주 결과물의 해당 각주마다 장수의 『수능엄의소주경』의 내용을 함께 적시하면서 그 일치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8회 등장하는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일견 그렇게 이해된다.

위 <표3>에서 권1 20下05의 첫째 줄을 이 논문의 회편 역주에서는 "'識精元明'의 풀이는 고산 지원과 장수 자선의 두 해석에서 이미 장수['극량']가 분명한데"라 번역한 것이 대표적이다.[37] 곧 고산과 장수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그 결괏값을 원문에서 '극량'으로 치환한 뒤 '두 해석 가운데 이미 장수에게서 분명하다'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23下08에서 밑줄 친 부분은 장수 자선의 주석서에서 확인된다. 또 다른 예로 본고에서 분류한 유형 가운데 '단순참조형'에 해당하는 두 용례와 '전재형'인 한 가지 용례, 그리고 23下08에서 '《集》'이 표기된 원문을 대조해 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

35) "05上07 天竺沙門般剌密諦는 此云極量이니 中天竺人也라. 唐中宗神龍元年【西紀705】於廣州制旨寺에 譯하니 平章事房融이 筆授하고 烏茶國沙門彌伽釋迦가 譯語라." 봉선사능엄학림 2013, 28.

36) 이동혁 2026, 연구 논문의 37, 회편 역주의 9에서 각주 17.

37) 이동혁 2026, 회편 역주의 212.

www.kci.go.kr

인악 의첨의 능엄사기(권1 부분)	장수 자선의『수능엄의소주경』
[20下02] 惡叉는 此云縌貫珠니 如極量釋하니라.	如線貫珠次第相連, 名惡叉聚。惡叉, 梵語, 此云線貫珠。[38]
[22下11] 不得漏盡하야 成阿羅漢者는 旣成彼定인댄 豈不得此果리요? 此非小乘羅漢이라 是大乘羅漢이라. 大乘中에 第七地를 謂阿羅漢이며 又如來三號中에 有阿羅訶하니 如極量釋에 具引《纓絡經》說하니라.	問：既修此定, 能得無漏, 何故經云「不得漏盡成阿羅漢」? 答：此明不得大乘阿羅漢也。《纓絡經》中, 初歡喜地名鳩摩羅伽, 秦言逆流, 乃至七地名阿羅漢, 秦言過三有。故知今言不得漏盡, 乃指不斷二障之漏, 不證大乘羅漢也, 況究竟無學, 佛地始稱, 故佛三號有阿羅訶也。[39]
[23上09] 身心本不相代者는 如《疏》所釋이로대 而若極量卽云"身戒는 雖從佛得【凡所戒行이 從佛所爲故云'從佛得之'】이나 心定은 宜當自證하니 此意如何"오?(라하니라.)	初心入道, 罔解克修, 恃賴親因, 將惠正受。豈知身戒雖從佛得, 心定宜當自證, 本不相代, 斯之謂歟? [40]
[23下08] 極量《集》에 以上句로 爲破煩惱하고 以下句로 爲破所知者는	「…, 發妙明心, 開我道眼。」… 發妙明心, 破煩惱障也。開我道眼, 破所知障也。[41]

〈표4〉 인악 의첨의 능엄사기(권1 부분)와 장수 자선의『수능엄의소주경』구절 대조

인악이 20下02와 22下11 두 곳에서 '如極量釋'('단순참조형'), 23上09에서 '極量卽云'('전재형'), 그리고 23下08에서 '極量《集》'이라 언급하며 사기한 부분과 장수의『의소주경』을 대조해 보면 그 문장이 정확히 대응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극량은, 인악이 장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붙인 별칭'이라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득력은 권1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 주장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표3〉 가운데 권4 25上10의 "보환스님은 오홍이 수를 합한 것에 따르고, '극량'은 장수가 수를 합한 것에 따르거니와 나는 '극량'을 따를 뿐이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결정적이다. 이 문장에 따르면, '극량'은 장수에 등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수의 주석과 견해를 수용하거나 계승한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표4〉에서 확인되는 장수의 주석과의 축자적 일치와 권4에서 확인되는 장수와 '극량'의 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그대로 '극량'의 성격을 방

38) 『수능엄의소주경』권1, (T. 39, 837b17-19).
39) 『수능엄의소주경』권1, (T. 39, 840b5-11).
40) 『수능엄의소주경』권1, (T. 39, 840c8-10).
41) 『수능엄의소주경』권1, (T. 39, 841a6-9).

www.kci.go.kr

증하는 단서로 볼 수 있겠다. 곧 장수의 서술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는 문장이 온전하게 일치하지만, 편집이 일어난 경우는 개인적 판단이 개입된 절충이 이뤄져 장수의 견해와는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상반된 서술은 '극량'이 특정 인물의 저작이 아니라, 장수의 주석을 골자로 편집자의 견해가 더해진 복합적인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정합적이라는 것이다.

2. 과연 인악이 언급한 '극량'의 정체는 무엇인가?

『해몽초』 권1의 첫머리에는 「고금소해품목(古今疏解品目)」이라는 제목의 글이 맨 먼저 등장한다. 전겸익이 '당・오대오월(五代吳越)・송・승국몽고(勝國蒙古)・황조(皇朝)'로 구분하며, 그 시기 동안 찬술된 43종의 『능엄경』 주석서 제목과 저자 등의 서지를 밝힌 목록집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각 주석의 계보 정리는 물론, 자기 견해까지 덧붙여 놓았는데, 그 가운데 문헌 제목이나 주석가 이름으로 '극량'은 확인되지 않는다.[42] 이는 '극량'이 중국의 『능엄경』 주석 전통에서 독자적으로 유통된 형태는 아니었다는 방증이 된다.

그런데 유독 조선 후기에 찬술된 인악의 능엄사기에서만 '극량'의 이름으로 여타 주석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비교 인용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검토하며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며 본고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조심스레 제시해 본다. 곧 기존의 주석서들처럼 특정 저자의 단일 저작이 아니라, 장수 자선 계열의 주석 전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일종의 자료에 부여한 명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내용들에 기반해 세 가지 근거를 들 수 있겠다.

첫째, 본고에서 분류한 유형 가운데 '③서지 명시형'과 '④전재형'에 등장하는 '極量傳・極量頌'과 '極量卽云・極量傳云・極量《集》'과 같은 형태의 서술이다. 그러한 서술 그대로가 그와 같은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설, 게송, 일화 등 여러 갈래의 자료가 합철된 편집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지점은 권1 23下08에서 확인되는 '極量《集》'이다. 이는 '극량'이 단일 저자의 저작이 아닌, 여러 자료가 모인 편

42) 『대불정수능엄경소해몽초』 卷首, (X. 13, 503b21-506a20).

www.kci.go.kr

집 결과물이라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 · '송' 형식과 같은 정황 추정보다, 본고의 가설을 뒷받침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판단된다.

둘째, 『해몽초』「고금소해품목」에 '극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편집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량'이 중국에서 유통된 독자적인 문헌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그럼에도 이는 오히려 본고의 가설과 정합적으로 부합한다. 이처럼 중국의 주석(특히 장수 자선 계열)을 한국에서 발췌 혹은 재편하며 이뤄진 편집물일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셋째, '극량'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존재감이다. 범본 경전의 한역가의 권위를 가탁한 후대의 편집자가 그 해석집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전용했을 가능성 역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고가 지닌 문제의식에 따른 '극량'이라는 인용 표지의 정체 규명은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모든 용례에 쓰인 전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장수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성격 역시 추가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조선 후기 『능엄경』 사기 전통에서 중국 주석서를 수용하고 재편집했을 가능성의 한 단면을 도출한 데 그 의의가 있겠다. 인악은 물론, 연담 역시 계환의 『요해』를 저본으로 능엄사기를 지으며 다양한 계통의 중국 주석서를 참고하고 종합 비판했는데, 그 결과물로서 '극량'의 이름을 따온 일종의 자료집 - 인악의 능엄사기에 국한한 추정이지만 - 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전통 강원에서 이어진 한문 불전의 학습이 단순한 수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합 재편한 강학 전통이 살아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의 방향이 디딤돌이 되어, 향후 능엄사기에서 다른 용례와 함께 다른 경서의 사기에서도 이와 같은 출전 검토 작업을 통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ww.kci.go.kr

Ⅳ. 맺으며

본고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강백 중 한 명인 인악 의첨의 능엄사기에서 자주 출현하는 '극량'과 관련한 용례에 주목하며 그 정체를 검토한 연구이다. 주지하다시피 '극량'은 『능엄경』을 한역한 반랄밀제를 한자로 의역한 것인데, 반랄밀제가 주석서를 남겼다는 기록은 없다. 게다가 인악이 사용한 용례를 검토하면, 오히려 주석가의 이름이나 그 문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박사논문 가운데서 그와 관련해 일부 논의된 지점에 힘입어,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두 갈래로 나눠 살펴봤다. 먼저 Ⅱ장에서는 인악의 능엄사기에 쓰인 '극량'의 전체 양상을 면밀히 정리했고, Ⅲ장에서는 '극량'의 정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했다.

그 결과, Ⅱ장에서는 인악의 능엄사기 전체에 쓰인 '극량'의 용례는 58회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별로 범주를 좁히면, 권1에 8회 · 권2에서 4회 · 권4에 6회 · 권5에서 7회 · 권6에 9회 · 권7에서 10회 · 권8에 14회 빈도로 분포하는데 권3 · 9 · 10에서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 수치상의 통계를 낸 이후, 용례의 유형을 '①단순 참조형', '②비교평가형', '③서지 명시형', 그리고 '④전재형'의 네 가지로 나눴다. 그 결과 35건으로 '①단순 참조형'이 가장 많지만, 유의미한 결괏값을 도출하기에 용이한 주석의 내용이 풍부한 '②비교평가형'을 중심으로 '극량'의 존재를 추적했다. 이로써 '극량'이 특정 주석가의 이름이나 주석서 제목으로 읽히는 지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곧 인악은 능엄사기 문장 속에서 '극량'의 풀이를 여타 『능엄경』 주석들과 비교하며 비평은 물론,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극량'의 원의와 함께 최근 연구에서 논의한 '극량'의 정체를 톺아봤다. 『속고금역경도기』 권1의 기록 이후, '극량'은 반랄밀제를 중국식으로 부른 말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전승됐으며, 조선 후기 연담의 능엄사기에서도 한 차례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최근 이동혁의 박사논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인악이 장수의 견해를 '지극한, 궁극의 탁량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듯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그 주장에 상응하는 구절을 대조해 본 결과, 그 설득력은 권1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 주장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권4의 용례에 따르면, 극량'은 장수에 등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장수의 입장을 수용 및 계승한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해몽초』의 「고금소해품목」에

www.kci.go.kr

는 당대부터 명대까지 찬술된『능엄경』주석서 43종의 서지가 정리돼 있는데, 여기서도 '극량'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이상의 검토와 논의를 종합해 조심스러운 추정을 제시해 봤다. '극량'은 특정 저자의 단일 저작이 아니고, 장수 계열의 주석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편집된 자료에 부여한 명칭이라는 가설이다. 그 근거로는 앞의 논의에 기반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앞서 분류한 '③서지 명시형'과 '④전재형'에 쓰인 '極量傳 · 極量頌'과 '極量卽云 · 極量傳云 · 極量《集》'과 같은 형태의 서술, 그 가운데 '極量《集》'에서 드러나는 편집물의 명시적 성격

둘째,『해몽초』「고금소해품목」에 '극량'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셋째, '극량'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존재감

그러나 아직 '극량'이라는 인용 표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 전체 용례의 전거를 낱낱이 검토하지 못했으며, 장수의 견해와 밀접하다는 성격 역시 추가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의 강학사기 전통에서 중국 주석서를 수용하고 재편집했을 가능성의 일면을 엿본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강원의 한문 불전 학습에 있어 중국 주석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강학 전통으로 살아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의 방향이 마중물로서, 향후 사기와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ww.kci.go.kr

1. 1차 자료

『首楞嚴義疏注經』(T39)
『楞嚴經通議』(X12)
『楞嚴經正脉疏』(X12)
『大佛頂首楞嚴經疏解蒙鈔』(X13)
『首楞嚴經義海』(P168)
『宋高僧傳』(T50)
『續古今譯經圖紀』(T55)

『楞嚴記抄』- B210.8묵221ㄹ v.21[仁岳](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영인본)
『楞嚴經誌』- B213.419의813ㄴ 영[仁岳](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영인본)
『佛頂記抄』- B213.413불73 v.1[仁岳](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영인본)
『楞嚴記』- B210.8묵221ㄹ v.95[仁岳](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영인본)

봉선사능엄승가대학원. 2013.『楞嚴經私記(蓮潭記・仁岳記)』. 해조음.

2. 2차 자료

김서호. 2020.「조선시대 불교 강원 승가교육 교재 현존 판본 및 강학사기 연구 - 17~19세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 2010.「조선 후기 불교의 강학 전통과 白羊寺 강원의 역사」.『불교학연구』25: 283-328.
_____. 2012.「동아시아의 澄觀 화엄 계승과 그 역사적 전개 - 송대와 조선 후기 화엄 교학을 중심으로」.『불교학보』61: 267-296.
김진열. 1991.「『능엄경』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천학. 2016.「雪坡尙彦의 澄觀『화엄소초』이해의 일고찰 -「십지품소」를 중심으로」.『호남문화연구』59: 299-329.
김학목. 2012.「서계 박세당의『도덕경』주석 목적」.『공자학』23: 39-63.

www.kci.go.kr

엄미경(명준). 2021.「백파 긍선『禪要記』연구와 역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a. 2022.「백파 긍선『禪要記』에 해석된 고봉 원묘의 간화선 삼요」.『동아시아불교문화』52: 65-97.
_____b. 2022.「백파 긍선『禪要記』필사본의 서지사항과 원형 추적」.『한국불교학』104: 37-71.
이동혁(대연). 2026.「조선시대『능엄경』주석서 연구와 회편 역주 - 권1의 언해 협주와 사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a. 2026.「조선시대『능엄경』주석 전통에 대한 시론 -『능엄경』권1의 언해 협주와 사기를 중심으로」.『한마음연구』16: 357-391.
_____b. 2026.「조선 후기 楞嚴私記에 나타나는 蓮潭과 仁岳의 주석 경향과 講學 교류에 대한 소고 -『능엄경요해』권1의 解題를 중심으로」.『보조사상』74: 170-202.
이상하. 2018.「조선조 불서 언해·사기와 탄허 懸吐譯解의 비교 고찰」.『한국선학』51: 197-223.
이선화(선암). 2016.「科圖와 私記를 활용한 看經法 -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의 사례를 중심으로」.『남도문화연구』30: 123-152.
_____. 2017.「조선 후기 화엄사기의 연구와「往復序」회편 역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범(승범). 2018.「조선 후기 연담과 인악의 華嚴十地私記 비교 연구 - 화엄경소초 麗字卷 사기를 중심으로」.『남도문화연구』35: 269-288.
_____. 2021.「조선 후기 화엄 십지사기 연구 - 연담과 인악의 사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4.「『華嚴私記』에 보이는 징관의 禪宗觀 이해 - 연담과 인악의 사기를 중심으로」.『남도문화연구』51: 41-68.
이종수. 2010.「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의 선정과 그 의미」.『한국사연구』150: 115-142.
_____. 2012.「조선후기 불교 사기 집성의 현황과 과제」.『불교학보』61: 297-332.
_____. 2017.「조선후기 불교 강학사기의 종류와 定本化의 필요성」.『남도문화연구』33: 9-35.
_____. 2018.「담양 용화사 소장 불서의 종류와 가치」.『서지학연구』75: 129-144.
이정희. 2013.「조선 후기 私記의 불교학적 의미」.『한국불교사연구입문(하)』. 지식산업사.
윤미란. 2025.「『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의 강학 사기 연구 및 역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www.kci.go.kr

| Abstract |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Term Geungnyang (極量) in Inak Uicheom's Neungeom-sagi of the Late Joseon Period

Lee Dong-hyeok (Daeyeon)
(Educational Acarya,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study examines the recurring term geungnyang (極量) in the *Neungeom-sagi* (楞嚴私記, *Personal Notes on the Śūraṅgama Sūtra*) by the great late-Joseon gangbaek (講伯) Inak Uicheom (仁岳義沾, 1746-1796) to clarify what it designates. In the *Śūraṅgama-sūtra* exegetical tradition, *geungnyang* is a Sinographic rendering of the name of the sutra's translator, Bhanamiti (般剌密帝). In Inak's commentary, however, its context indicates a separate exegetical source or commentator rather than the translator.

A survey of all ten fascicles of the *Neungeom-sagi* identifies fifty-eight occurrences of the term, which is absent only from fascicles 3, 9, and 10. These occurrences fall into four categories: simple reference, comparative evaluation, bibliographic citation, and direct quotation. Analysis of the thirteen substantive instances of "comparative evaluation" confirms that *geungnyang* functions as a proper noun designating a specific person or text, rather than Bhanamiti.

The study also reexamines a recent dissertation's claim that *geungnyang* is Inak's alias for the Song exegete Changshui Zixuan (長水子璿, 965-1038). This claim holds for fascicle 1, where passages cited under *geungnyang* match Changshui's Shoulengyan yishu zhujing verbatim. A passage in fascicle 4, however, treats *geungnyang* as an entity that itself follows Changshui's view, making a simple identification untenable. This tension is revealing: verbatim

www.kci.go.kr

transmission preserves the exact wording, whereas editorial intervention produces divergence from Changshui's own view.

Considering this evidence alongside the term's absence from the bibliographic catalog in Qian Qianyi's(錢謙益, 1582-1664) *Jiemengchao* (解蒙鈔), the study cautiously proposes that *geungnyang* designates a composite text compiled in Korea within the Changshui exegetical lineage, with layers of editorial intervention, rather than the work of a single author. This finding shows how late-Joseon seminary commentators actively synthesized and reorganized Chinese exegetical sources rather than simply receiving them.

Keywords

Late Joseon Buddhism, *Śūraṅgama-sūtra (Neungeom-gyeong)*, Inak Uicheom, *Neungeom-sagi*, *Geungnyang*, Changshui Zixuan

2026년 9월 6일 투고

2026년 9월 29일 심사완료

2026년 10월 1일 게재확정

www.kci.go.kr